

삼국지를 통해 본 설득과 협상의 지혜

- 적벽대전(赤壁大戰)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II. 적벽대전으로의 길 1 : 설전군유(舌戰群儒)

1. 공명과 보졸
2. 공명과 설종
3. 공명과 육적
4. 공명과 정덕추

III. 적벽대전으로의 길 2 : 공명의 협상 같은 설득

IV. 적벽대전으로의 길 3 : 공명의 탁월한 협상

V. 맺음말

김기홍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삼국지를 통해 본 설득과 협상의 지혜*

- 적벽대전(赤壁大戰)¹⁾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적벽대전은 삼국지에서 가장 장엄한 전쟁이다. 조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는 여세를 몰아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손권이 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동오(東吳)도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을 것이다. 유비 또한 비밀 언덕도 없는 처지에서 천하삼분이라는 비전은 꿈으로만 남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적벽대전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공명이다. 공명은 유비의 사신으로 손권에게 가 동오의 진영에 들끓고 있는 항복론을 일축시키고 ‘세치 혀’로써 조조군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대전을 벌이게끔 유도한다. 그 과정에서 공명은 동오의 신하들과 일대 설전(舌戰)을 벌이고 손권, 주유와 협상 같은 설득을 한다.

비록 나관중의 창작을 통해, 또 작가 황석영의 번역본을 통해 접하는 것이지만 공명의 설득은 놀랍기만 하다. 저자세의 설득보다는 공세적인 토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설득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하는 것 같고, 단순한 말의 수사라기보다는 현란한 전략을 보는 것 같다. 공명과 동오의 신하들, 그리고 손권과 주유의 대화 혹은 협상을 통해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현란한 비법의 편린을 엿보기로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김기홍, 2007, 『설전 삼국지』(부표)의 제2부를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요약하고 그것을 설득과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책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 포함된 삼국지 주요 인물들의 대사는 나관중, 2003, 『삼국지』, 황석영 역(창비)에서 인용한 것이다.

1) 적벽대전이란 후한(後漢) 말기에 조조(曹操)가 손권(孫權)과 유비(劉備)의 연합군과 싸웠던 전투를 말한다. 당시의 정세를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원소(袁紹)를 무찌르고 화북(華北)을 평정한 조조는 형주목(荊州牧)을 지키고 있는 유표(劉表)를 정복하고 형주 땅을 차지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하였다. 유표의 급사로 손쉽게 형주를 차지한 조조는 강릉으로 달아나는 유비를 추격하였다. 조조군은 강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적벽에서 손권·유비 연합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조군은 손권의 장수 황개(黃蓋)가 화공(火攻) 계략을 세워 전선(戰船)이 불타는 대패를 당하고 화북으로 후퇴했다. 이 결과 손권의 강남 지배가 확정되고 유비도 형주(荊州; 湖南省) 서부에 세력을 얻어 천하 3분의 형세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적벽대전은 삼국지 중반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의지할 곳 없었던 유비는 축을 얻게 되었고, 조조는 천하를 통일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조할 수 있다.

II. 적벽대전으로의 길 1 : 설전군유(舌戰群儒)²⁾

조조와 전쟁을 벌이도록 설득하러 온 공명에게 동오의 신하들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공명은 우선 이런 비우호적인 동오의 신하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을 설전군유(舌戰群儒)로 표현한다. 한 무리의 유림들과 말로써 일대 결전을 벌이는 것이다.

1. 공명과 보졸

보졸은 말 잘한다는 그 명성 하나로 우리를 설득하러 온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명을 압박지른다.

보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명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언변을 본받아 우리 동오를 설득하러 온 것이오?”³⁾ 공명 당신도 소진과 장의처럼 말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조조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 혹은 아니오 라는 답이 나오기 쉽다. 자기 본심을 들켜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은 이런 보졸의 공격을 우선 슬쩍 비껴간다.

“자산(子山, 보졸의 자)은 소진과 장의가 변사라는 것만 알았지 그들이 호걸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셨던 게로구려. 소진은 일찍이 여섯 나라의 재상을 지냈으며, 장의는 두 번이나 집나라 재상이 되어 나라와 백성들을 보살폈소이다.”

소진과 장의의 인물됨을 바르게 말하는 것쯤으로 만족할 공명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졸과 같은 동오의 신하들은 소진과 장의보다 못한 인물들이라고 매섭게 말한다. “이들은 모든 나라를 바로잡은 뛰어난 인물로,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칼을 두려워하고 창을 피하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너희들은 졸장부라는 것이다.

공명은 여기서 내친 김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보졸의 말문을 막아버린다.

2) 여기에 나오는 일곱 명의 동오의 신하(분량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그 중 네 명의 신하와의 설전을 설명하였다)는 조조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신하들이다. 그래서 공명이 동오를 방문했을 때 공명이 찾아온 목적을 알고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3) 이 글에서 나관중의 삼국지 대사는 다른 글꼴을 사용하고 밑줄을 그어 구분하였다.

“그대들은 조조가 함부로 지어낸 거짓 격문 한 장에 그만 두렵고 무서워 항복하기를 청하면서 소진과 장의를 비웃으려 하니, 오히려 소진과 장의가 그대들을 비웃을 것이요.”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졸장부들이 어찌 소진과 장의 같은 호걸을 거론하여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느냐는 것이다. 설득하지 말라는 보졸의 공격을 되받아 오히려 완벽하게 설득을 한 셈이다.

대화와 설득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바로 답하려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설득하러 왔는가?” 하고 물으면 예스 혹은 노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말고, 설득이 무엇인지 아는가, 혹은 설득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가와 같이 우회적 방법으로 질문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처하는 것이다.

2. 공명과 설종

이제 동오의 신하들과의 설전은 조조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다다른다.

설종은 묻는다. “공명은 대체 조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공명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인데 새삼 물을 게 뭐 있소?” 한나라의 역적. 군더더기 없다. 동오를 설득하러 온 이 자리에서 조조가 한나라의 역적이 아니라면 달리 할 말이 없다.

설종은 현실론을 들고 나온다. “공의 말씀이 틀렸소이다. 한나라가 이제 천수(天數)를 다해가는 터라, 조공이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조조에게 기운 형편이요. --- 그러니 어찌 패하지 않겠소이까?”

조조가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한 사실을 반박하기는 어렵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명은 이런 현실에 맞서 명분론을 들고 나온다. 충과 효라는 봉건시대의 기본 덕목을 들고 나오며 설종을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인다.

“경문(敬文, 설종의 자)은 어찌하여 아비도 임금도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시오? --- 그대는 한나라 신하가 되었으니, 신하노릇을 하지 않는 자를 보면 당연히 힘을 모아 그를 없애려 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요. 이제 조조가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먹고도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않고 도리어 반역할 마음을 품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거늘, 그대는 이것을 오히려 천수로 돌리니 참으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이구려. 더불어 얘기할 상대가 못 되니 다시는 입을 열지 마시오!”

설중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충과 효라는 봉건질서의 기본은 승자(勝者) 중심의 가치관이니 조조가 새로이 천하를 통일한다면 조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충의 질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중국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설중이 이런 측면으로 공명을 공격했다면 이 대화는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명은 이런 사실을 예견했는지 아니면 짐짓 명분의 화신으로 화했는지 별걱 화를 내면서 설중의 말문을 막아버린다.

공명이 사용한 설득 혹은 대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실론에는 명분론으로 대응하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 현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럴 때는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것으로 대응하라. 둘째, 새로운 현실이 새로운 명분을 만들 기회를 주지마라. 고조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라를 이어온 것이니 조조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새로운 충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 짐짓 화를 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명분이 탁월하면 그 명분으로 상대방을 세차게 몰아쳐라. 충과 효라는 명분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명은 이것을 의지하여 설중을 코너로 몰아붙인다.

3. 공명과 육적

육적이 거론하는 문제는 유비와 조조의 출신성분에 대한 것이다. 조조는 조참의 후예이지만, 유비는 뜻자리나 짜고 짚신이나 삼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어찌 조조에 맞서 싸우느냐는 것이다. 공명의 대처방안이 매우 재미있다. 육적의 출신성분을 들고 나온다. “공은 원술의 면전에서 곁을 훔치던 육랑(陸郎)이 아닌가?”이 말을 듣는 육적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공명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간다.

“조조가 조상국의 자손이라면 저도 한나라 신하가 분명한데, 지금 함부로 권세를 희롱하여 임금을 업신여기니, 이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제 할아버지 옥보이는 것이며, 한나라 황실의 난신(亂臣)일 뿐만 아니라 조씨의 적자(賊子)요. 그러나 유예주께서는 당당한 황제의 자손으로 지금 황제께서 족보를 살펴보고 벼슬을 내리셨거늘, 어찌하여 증거가 없다고 하시오? --- 육공은 소견이 어린아이 같으니 족히 높은 선비와 더불어 한자리에서 논할 위인이 못 되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명은 육적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다. 그 요지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육적 네 말대로 조조가 조참의 자손이라면 한나라 신하인데 지금 임금을 업신여기니 역적이 아니냐. (2) 황제가 족보를 보고 유비에게 벼슬을 내렸는데 증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3) 한의 고조도 동장의 신분으로 천하를 얻었는데 뜻자리 짜고 쫓신을 삼은 게 무슨 잘못이나. (1)의 답변은 육적이 제기한 질문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 조조가 조참의 후예인 것은 맞다. 그러면 한나라 신하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한나라 신하로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2)의 답변은 유비가 황실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족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3)의 답변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육적의 질문이 정당하지 못함을 역설한다. 설사 황실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한의 고조(유방)도 동장의 지위에서 출발하여 황제가 되었는데, 뜻자리 짜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될 수 있느냐.

어디 공명의 논리에 빈 자리 하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공명은 육적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췌기를 박아버린다. 소견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어찌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세객의 처지에서 즐지에 어린아이로 전략했으니 그런 상태에서 육적이 어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4. 공명과 정덕추

이번에는 정덕추가 공명의 학식, 혹은 외형적 학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정덕추는 말한다. “공이 큰소리는 치지만 제대로 된 학문이 없으니 선비들의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요.”

정덕추는 공명의 가방 끈이 짧으니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조롱한다.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는 (1) 제대로 된 학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2)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반론을 한다. 하지만, 공명은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구절에서 선비라는 단어를 따워서 공격을 한다. 선비 중에도 군자와 소인이 있는데 소인은 글만 따지다 실제로는 천하를 움직일 한 가지 계책도 없으니, 이런 소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소인이 오히려 군자를 비웃으니 그게 우스운 일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말이다.

“선비 중에도 군자와 소인이 있으니, 군자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감사한 것을 싫어하니, 그 덕이 당대에 미치고 그 이름은 후세에 길이 남는 법이오. 소인은 그저 책벌레처럼 글줄이나 파고 문장을 다듬는 데만 교묘하여, 젊은 시절에는 부(賦)나 짓고 늙어서는 경서를 연구하며, 붓을 들면 비록 천 마디를 써내지만 가슴속에는 한 가지 계책도 없는 법이오.”

바꾸어 말하면 정덕추 그대는 소인이고 소인인 그대가 비웃는 나는 군자다. 공명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답변의 어디에도 ‘나는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내용 그 자체로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할 뿐이다. 정덕추와의 설전 내용 역시 지금까지 언급했던 대화의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한다. **‘상대방의 질문 내용 그 자체에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보졸, 설중, 육적, 정덕추. 공명은 이렇게 일곱 명⁴⁾의 동오 선비와 설전군유(舌戰群儒)를 벌인다. 이 설전군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명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논쟁을 효과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설전군유 전체를 보면 공명이 모든 설전에서 충분히 ‘공세적인 형태’로 논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압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적벽대전으로의 길 2 : 공명의 협상 같은 설득

공명은 설전군유를 통해 동오의 신하들과의 설전에서 일단 그들의 논리를 제압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봉건시대에서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군주의 몫이다. 그래서 나관중은 적벽대전으로 이르는 두 번째 단계로서 공명과 손권⁵⁾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4) 우변, 장소와 엄준과의 설전은 지면 부족으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들과의 설전은 김기홍(2006), 『설전 삼국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손권은 동오의 젊은 군주다. 과거 전쟁의 결정은 오롯이 군주의 몫이다.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군주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손권과 나누는 공명의 대화는 이전 신하들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신하들과의 대화가 공세적이었다면 손권과의 대화는 복선과 복선이 연결되는 한 판의 놀이와 같다.

공명과 손권의 대화는 크게 3부로 나누어진다. 1부는 현재 천하의 형세와 조조군의 군사능력에 대한 것이고, 2부는 전쟁과 항복이라는 동오의 결정에 대한 공명의 조언, 3부는 유비의 태도에 대한 공명의 설명이다.

손권이 묻는다. “대체 조조의 군사가 얼마나 되요?” 조조와 전쟁을 벌이도록 설득하러 온 것이니 조조의 군사가 얼마냐는 물음에는 조금 과소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공명은 반대로 대답한다. “기병·보병·수병이 대략 백만이 넘습니다.” 혹 과장이 아니냐는 손권의 질문에 공명은 가차 없이 대답한다. “다 따져보면 이것만 해도 150만을 넘습니다. 제가 백만이라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강동사람들이 놀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공명의 의도는 무엇인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일까? 아니면, 과장이 아니라는 자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군대 규모를 과장되게 말한 것일까? 공명의 말을 듣는 노숙의 표정이 변한다.⁶⁾ 이 대목이 여간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노숙⁷⁾은 공명이 조조의 군대를 가볍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손권이 조조와의 전쟁을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2부. 공명의 의도야 어쨌든, 조조의 군대가 막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손권으로서도 심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묻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장군께서는 부디 강동의 힘을 헤아리시어 의견을 정하십시오. 만약 오(吳)와 월(越)의 군사로써 능히 증원과 힘을 거루실 수 있겠거든 속히 조조와 연을 끊어야 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모사들의 말씀대로 군사를 거두어 무기를 버리고 북면(北面, 왕이 남면하므로 신하로서 북면한다는 것은 왕을 섬김을 뜻함)하여 조조를 섬기는 게 옳을 줄로 압니다.”

공명은 원칙론을 말한다. 지금 조조의 군대는 막강하고 그 위용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강동은 자신의 힘을 헤아려 결정을 해야 한다. 조조에 버금가면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해야 한다. 공명은 이 원칙론을 말하면서 ‘모사들의 말씀대로’라는 말을 슬쩍 끼어 넣는다. 당신네 모사들도 항복하기를 권하고, 현실도 조조군사의 위용이 휘황찬란하니 항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어디 하나 논리의

6) 나관중은 본문에서 노숙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결에서 이 말을 들던 노숙은 낮빛이 변했다. 그는 몇 번이나 던지시 공명에게 눈짓을 보냈으나, 공명은 모른 체할 뿐이다.

7) 노숙은 동오의 전략가이다. 그는 동오가 반드시 조조와 일전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명을 초청하여 조조와 전쟁을 벌이기를 주저하는 동오의 신하와 손권을 설득해주기 바란 것이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없다. 천하의 정세도 그러하고, 자신의 모시들도 충고하고, 공명마저 그렇게 말하니 — 손권으로서 내심 항복하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 3부. 하지만 한 가지 의심이 있다. 천하의 정세가 그렇다면 왜 유비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가? 손권은 마침내 그것을 묻는다. “정세가 선생의 말과 같다면 유예주께서는 어째서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오?” 공명의 치밀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대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날 전횡(田橫)은 한낱 제나라의 장수에 지나지 않았건만 의리를 지켜 적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유예주는 황실의 후예로, 영특하신 재주가 세상을 덮어 모든 선비들의 추앙을 받는 터가 아닙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늘의 뜻이거늘, 어찌 몸을 굽혀 남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손권의 심정이 어떠한지라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분노와 자존심의 손상, 공명에 대한 진노.

이 대화는 단순히 말하면 공명이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림으로써 조조와의 전쟁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천하의 형세가 아무리 급박하다 해도 유비는 황실의 후예이기 때문에 항복을 할 수 없고, 손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 항복해야 한다. 이런 말이 어찌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는 상대방의 약점 혹은 자존심을 건드려 의도한 바를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전략(A Simple Strategy)이다. 하지만, 이 대화는 단순한 전략 이상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협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협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노숙을 따라 동오에 온 공명의 제일가는 협상목표는 ‘손권이 조조와 전쟁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비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목표는 여기에 뒤따른다. 협상의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협상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영특한 군주, 손권. 형 손책이 창업한 동오를 수성(守成)의 단계로 끌어올린 군주. 하지만, 그는 아직 젊다. 나이가 좀 더 있다면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진정한 용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젊은 나이에서는 진정한 용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할 수 있다. 공명은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조와 전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명분에 근거한 설득보다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이 오히려 손권의 결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IV. 적벽대전으로의 길 3 : 공명의 탁월한 협상

공명이 손권과의 대화를 통하여 일단 손권의 마음을 뒤흔드는 데는 성공했다. 손권은 조조와 일전불사를 하기로 생각하면서도, 항복을 권유하는 수많은 모사들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긴다. 그러던 차, 손책이 세상을 뜨면서 나라밖의 일은 주유와 상의하라는 말을 떠 올리고 주유를 불러오게 한다. 공명 역시 최종적으로 주유를 움직이는 것이, 손권을 움직이리라는 것을 안다. 공명은 어떻게 주유를 움직일까?

이 설전은 크게 2부로 나눌 수 있다. 1부는 ‘항복을 하느냐 혹은 전쟁을 하느냐’는 기본 결정에 관한 것이고, 2부는 효과적으로 항복을 하기 위한 계책에 대한 것이다.

먼저 1부. 주유는 이미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손권보다 좀 더 세상의 경험에 있는지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 항복이라는 진정한 용기에 마음이 기울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유의 말에 노숙이 가만있을 리 없다. 동오와 같이 험난한 지형과 주유와 같은 영웅적인 장군이 있으니 조조가 쉽게 이길 리 없다. 그러니 뜻을 바꾸시오. 이런 말씨름을 바라보는 공명이 가만히 웃고 있으니 주유가 이를 궁금히 여겨 묻는다. 드디어 공명이 개입할 기회를 잡는다.

“공근(公瑾, 주유의 자)이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뜻을 정한 것은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오.” --- “조조는 용병이 뛰어나 천하에 당할 자가 없소이다. 지난날 겨우 여포·원소·원술·유표 등이 감히 대적했는데, 모두 조조에게 패하여 지금은 천하에 그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판국이오. --- 이제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단 하셨으니, 가히 처자를 보전할 것이고 부귀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오. 그까짓 나라의 운명이야 하늘에 달렸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애석해 할 일이 뭐가 있겠소?”

영똥하게, 동오에 유비의 사신으로 온 목적과는 달리, 공명은 조조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한다. 주유는 공감은 하지만, 노숙은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다. 공명의 표현이 재미있다. 항복을 하기로 했으니 ‘처자를 보존할 것이고 부귀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드러나지 않게 주유

의 자존심을 살며시 굽는다. 하지만, 노여움은 오히려 노숙에게서 나온다. 역적에게 항복하라니, 말이 되느냐고. “공명, 그대는 우리 주공더러 무릎을 꿇고 국적(國賊)에게 항복을 하라는 말인가!”

다음 2부. 이런 노숙의 항의를 들은 체도 않고 공명은 쉽게 항복하기 위한 한 계획을 설명한다. 조조가 동오를 치는 것은 사실상 동오의 아름다운 두 미인 강동 이교(二喬)를 얻기 위한 것이니, 이 두 미인을 조조에게 보내면 사실상 조조와의 전쟁이라는 위기는 종결된다. 공명은 말한다.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으니. 하나는 사해를 평정해 제업(帝業)을 이루는 것이요. 또 하나는 강동 이교(二喬)를 얻어 동작대에 두고 만년을 즐기는 것이라.’ --- 실상은 대교와 소교를 얻기 위함이니, 장군은 속히 교공을 찾아서 천금을 주고라도 두 딸을 사서 조조에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주유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조가 두 미인을 얻기 위한다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거듭 확인한다. 공명은 동작대부라는 시를 읊으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강동의 교공(橋公)이라는 사람에게 두 딸이 있어, 큰 딸은 대교(大喬)요 작은 딸은 소교(小喬)인데, 하나같이 자태가 물 속에 노니는 물고기, 모래펄에 내려앉는 기러기와 같다 하고, 그 미색은 구름 속에 숨은 달, 수줍어하는 꽃과 같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조조가 두 미인을 얻고 나면 더없이 흠족하여 필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게 분명하니.” 공명의 이 말에 주유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다. ‘늙은 역적 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모욕하는구나.’ 주유의 노함이 터져 나온다. 깜짝 놀라는 공명에게 ‘대교는 손책의 부인이고 소교는 자신의 부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공명은 짐짓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뒤로 물러서지만, 이것으로써 주유의 결정은 내려진다. 조조와 전쟁을 하는 것으로, 주유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손권 또한 자연스럽게 주유를 따라가게 된다.

삼국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명이 암송한 동작대부라는 시가 조작된 것을 안다. 동작대부에 나오는 이교(二喬)가 손책과 주유의 부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리를 뜻하는 이교(二橋)인 것을 안다. 그러니 공명이 글자 하나를 살짝 비틀어 시 내용의 일부를 바꾸어버린 것이다.

공명이 취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손권과 말로써 협상할 때의 방법과 같다. 협상에서 목표설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공명의 목표는 이전과 같이 동오가 조조와 전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단, 협상의 대상인 손권과 주유는 다르다. 손권이 조금 젊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보

다는 혈기에 좌우되기 쉽다면, 주유는 그와는 달리 동오라는 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자신의 혈기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고도 소중한 영역을 건드리는 것. 공명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동오를 창건한 손책과 동오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주유의 두 부인들을 건드리려고 한 것이다. 조조가 이 두 사람의 부인을 탐한다. 증거도 있다. 동작대부라는 시(詩)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명은 짐짓 동작대부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이 손책과 주유의 아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적어도 그런 체 하는 것. 그럼으로써 공명은 자기가 목적인 바를 달성한다.

V. 맺음말

공명은 설전군유, 손권, 주유를 상대로 때로 설득을 펼치고 때로 논쟁을 벌여 결국 이들을 적벽대전으로의 길로 인도한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적벽대전으로 인해 삼국지에서 위, 촉, 오 삼국정립(三國鼎立)이 이루어진다.

말이 무슨 힘을 가지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경우에 맞는 말, 사리에 맞는 말, 상대방을 움직이는 말,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격분케 하는 말, 그런 말의 조합에 의해 개인을 움직이고 그 개인은 다시 사회와 역사를 움직이게 된다. 공명은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자신의 말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역사를 만든 셈이다.

하지만, 단순한 말의 수사만으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 그 말의 대상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연구,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와 행적에 대한 연구 등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공명이 손권과 주유의 개인적 특성을 정확히 알고, 동작대부라는 시(詩)까지 인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이다. 그런 점에서 말의 사용은 협상의 과정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다. 그러니 공명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협상을 매우 잘하는 협상의 달인이었던 셈이다.